

장성호 수변길 제2출렁다리 만든다

장성의 대표 관광명소인 장성호 수변길에 제2출렁다리가 들어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장성군은 올해 말 현재 제1출렁다리로부터 약 1km 떨어진 구간에 제2출렁다리를 건설해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호수 맞은편에도 3km 길이의 수변길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교각을 설치해 양쪽 수변길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변길 초입에서부터 옐로우 출렁다리까지는 1.2km로 천천히 걸어도 30분이 채 안 걸린다.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을 감안해도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다.

여름의 장성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회 회원들도 많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한 여행객들이 대다수다.

특히 오후에 찾으면 호숫가에 장성호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단조로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잠시 일정을 비우고 장성호 수변길에 다녀올 것을 추천한다.

본격적인 장성호 수변길 산책이 시작되면 오로지 평온해진 마음으로 한껏 펼쳐진 푸른 하늘과 드넓은 호수, 푸르게 조립된 호수 맞은편의 아름다운 침엽수림을 감상할 수 있다.

구부러진 데크길을 걷다보면 어느덧 옐



장성군이 올 연말까지 장성호 수변길에 제2출렁다리를 만든다. 사진은 장성호에 설치된 제1출렁다리.

/장성군 제공

여름철 대표 관광명소 입소문...연말까지 완공

호수 맞은편 3km 길이 수변길 조성도 추진

로우 출렁다리와 마주하게 된다. 작년 6월에 개통한 옐로우 출렁다리는 장성호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많은 방문객들이 SNS를 통해 사진과 후기를 공유하면서 입소문이 인기를 더했다.

우선 두 마리 황룡의 모습을 형상화한 21미터의 주탑부터 보는 이를 압도한다. 강 속에 숨어 살며 마을 사람들을 몰래도 감시하는 장성 황룡강 전설이 모티브다. 총 길이 154m의 옐로우 출렁다리를 건

너면 마치 물 위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다리 한가운데는 원편으로 산등성이에 걸려진 석양을, 오른쪽으로는 탁 트인 호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감상 포인트다.

유두석 군수는 "장성호 수변길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관광명소"라며 "가족과 연인, 지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 장애등급제 폐지 속도

내달 1일 시행...조례 일괄개정·주민홍보 등

장흥군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를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군은 장애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8개 부서 13개 조례에 대해 발 빠르게 일괄개정하고, 등급제 개편계획 주민홍보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8년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요

구에 의해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19년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게 된다.

기존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한다.

다음달부터는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2020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의 주 목적은 지금까지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가구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지원하는 계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좀 더 내실있는 복지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소방서는 최근 목사고을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주소방서 제공

나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

유관기관 합동 소방시설 홍보

나주소방서는 최근 '6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남도, 관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나주목사고을시장 일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과, 여성서포터즈,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6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시장상인과 주

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김도연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염규동 기자

나주경찰, 차탈이 40대 절도범 구속

1,000만원 상당 물품 훔쳐

나주경찰서는 전남·북 일대 인적이 드문 곳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습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 A 씨(46·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5년 6월께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1년간의 교도소 수감을 마친 후 출소 직후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일대를 자

전거로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나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주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남·북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 차탈이 절도 사건 중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거나 수법·장소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중에 있다. /나주=염규동 기자



담양읍은 최근 버스터미널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읍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담양읍은 최근 버스터미널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성우 읍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고질적인 안전문제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성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75세 이상 대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장성군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군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은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63%나 증가했다.

또한 초 고령화 사회(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인 장성군의 고령인구는 28%대를 넘어섰으며, 10년 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시행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장성군에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7월 이후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성경찰서 민원실을 방

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면허증 반납은 파출소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으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없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이어서 12월에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와 인센티브 제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올해 안에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소급적용할 방침"이라며 "면허 반납 후 다시 운전이 필요하게 됐다면 반드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군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갱신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거주지역 인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장성군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6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 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바른환경연구소 담양군에 장학금 기탁

담양군은 최근 바른환경연구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미래전년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북면에 소재한 바른환경연구소는

국가공인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첨단장비와 숙련된 기술인력을 통한 정확한 분석결과를 제공,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질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장동원 기자



영광 지역주민 대상 무료 안 검진

영광군은 최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보건교육관에서 지역주민 14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

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진내용으로는 시력, 안압, 굴절, 현미경 검사 등 정밀검진 등을 시행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함평읍 지사협 사랑 나눔 밑반찬 봉사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사랑 나눔 밑반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 나눔 밑반찬 사업은 전남사회복

지공동모금회 등과 심시일남 연합모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이다. 박덕심 위원장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함평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